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순항'

올해 선정 도내 70곳 중 13곳 이달 중 사업 완료 전주사대부고, 공사 마치고 '책방' 으로 개관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올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된 70개교 중 13개교가 9월중 사업을 완료한다. 실제 전주사대부고 부설고등학교가 여름방학 중 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전주사대부고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다. 이어 12월까지 40개교 그리고 겨울

방학 중 17개교가 순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사서교사 및 일반직 사서 12명으로 학교도서관 현장지원단을 구성,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사업설명회와 우수학교에 대한 견학을 통해 선정 학교들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담당교사와 행정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래



9월 개관하는 '전주사대부고 책방'.

형 학교도서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서능력 향상 등 사업 취지에 적합한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자긍심·사명감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서거석 교육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대상 특강

서거석 교육감이 19일 전북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북 교육정책의 방향과 공무원으로서 익혀야 할 기초 직무교과, 각 직렬별 기초지식을 습득을 위한 전문 직무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임활동 및 선배와의 공감과 소통 시간은 신규공무원이 전북교육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날 특강에서 "전북교육이 희망의 대전환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이 시기에 공직에 입문한 전북의 인재들에게 기대가 크다"면서 "새로운 길에 합류한 여러분들이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강에 이어 교육감과 연수생의 일문일답 시간을 통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2023년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대상 교육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9일 전북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을"

"복리후생수당서 정규직과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 적용해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8일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최식을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현재 학교비정규

직 노동자의 임금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초과 추서에 나눠 받고 있다'며 "이 금액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오히려 이러한 차별 속

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민생을 감당해내고 있다"며 "교육복지의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상당, 보육 등의 더 커진 학교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커진 역할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은성 기자

상호 존중 조직문화 정착

도교육청,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제작·배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19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행위별 유형별 판단기준 및 다양한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제시했다.

특히 피해 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을 체계화 해 갑질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훈열 감사관은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미디어리터러리 교육 지원단 협의회 개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리터러리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실에서 미디어리터러리 교육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리터러시란 미디어 환경 안에서 원활하게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역량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있게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정에 반영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협의회는 상반기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협의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자기주도적 미디어 교육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총 8편으로 제작될 영상 콘텐츠에는 미디어의 정의 및 역할, 미디어 윤리와 책임, 정보의 접근과 공유·활용, 저작권과 개인 정보의 관리 등을 세부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미디어 리터러리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이해를 돕고 비판적 시각을 키워주자 한다"면서 "학교 미디어리터러리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농업계고 학생들, 전국영농학생축제 참가

제주서 20~21일 개최... 도내 9개 학교 103명 출전

도내 농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농생명산업의 비전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에 함께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이틀간 제주도에 서 열리는 제52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3FFK 제주대회)에 도내 9개교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생명산업계열 고등학생 840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환경을 지키GO! 농업의 가치를 더GO!'를 주제로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인 임무를 쟁취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은성 기자

고, 정읍제일고, 부안제일고, 한국치즈과학고, 영선고, 한국한방고 등 도내 9개교 학생 103명이 5개 분야 20개 종목에 출전한다. 출전종목은 △전공경진(식품, 동물, 식품가공, 농업기계, 조경·산림) △실무능력경진(화훼장식, 제과·제빵, 조경설계, 농기계 정비, 애견미용, 농식품 조리) △과제이수(경영, 연구과제 등) △글로벌리더십대회 △축제분야(KFFK 골든벨, 예술제)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 농업을 책임질 우리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농업의 방향을 고민하고, 선진 농업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2억5000만원 투자유치 이끌어내

전북대 창업지원단, '창업대전 투자 IR 로드쇼' 마련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10곳 선발 투자 협약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이 10곳의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들을 위해 12억5,000만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19일 전북대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4개 지역창업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13~15일까지 '제8회 전라북도 창업대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북대학교 투자 IR 로드쇼'를 마련해 1차 투자유치 강화교육과 컨설팅, 2차 IR자료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로드쇼에서 참여한 도내·외 6개 투자회사의 심사역이 10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 참여한 기업 10개사 모두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총 12억5,000만원의 투자 협약을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10곳의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을 위해 12억 5,000만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자유치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 준 창업기업이 좋은 성과까지 달성할 수 있어 보람이 있다"며 "더 많은 창업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해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STAR 컨소시엄 성과 공유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4~15일 양일간 각 권역별 6개 전문대학과 함께 LINCSTAR 컨소시엄 성과 공유·확산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LINCSTAR 컨소시엄에는 전주비전대학교를 비롯해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연성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 각 권역별 전문대학 6개교가 참여해 분기별 사업성과공유 및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력양성 △ICC 기업가치창출 △지자체와의 공유·협업을 주제로 각 대학의 2차년도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RISE체계의 연차별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대학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LINCSTAR 컨소시엄을 통해 각 권역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의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며 "전주비전대학교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지난 15일 탄소진흥원 탄소 B 회의실에서 한국(주)더데움·중국 순천역구(칭다오)국제무역유한공사·몽골 무역공업이사회 등 4개 기관의 한국, 중국, 몽골 투자 협조협약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대 탄소연구소, 한·중·몽골 투자 협약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는 지난 15일 탄소진흥원 탄소 B 회의실에서 한국(주)더데움·중국 순천역구(칭다오)국제무역유한공사·몽골 무역공업이사회 등 4개 기관의 한국, 중국, 몽골 투자 협조협약을 통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도 국제무역유한공사 대표인 최희정 회장, 더데움 임석대 대표, 탄소연구소장 김흥건 교수, 전주시 기업지원과 이기섭 과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한·중·몽골 투자 협조협약을 구성하고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몽골 현지에 탄소 난방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과 몽골 전역에 탄소 난방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업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유지·상호 이익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한·중·몽 4개 기관 협약의 주요 내용인 더데움 탄소난방의 기술은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와의 연구 협력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기존 보일러 시스템에 탄소히터 발열선을 활용한 카본히터를 적용해 더욱 높은 열효율을 갖도록 했다. 탄소연구소 김흥건 교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학간의 연구 교류를 통해 탄소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탄소연구소와 연구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더데움은 최근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연이어 해외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교육지원청, 북큐레이션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 지원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민수)은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책과 메이커교육을 융합한 북큐레이션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전북교육청에서 선정한 추천도서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학년군별로 북큐레이션 하고, 또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메이커교육을 융합해 진행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추천도서를 학년군별로 유형을 세분화해 △공간활용형(초 1~2학년) △자료검색형(초 3~4학년) △체험형(초 5~6학년)으로 북큐레이션 및 메이커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미래형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범위의 확대, 그리고 활용 사례를 학교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실시하며 이후 사례집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민수 교육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